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인양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람

주간 중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민국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은총을 전하라

“예수 내 구세주! 내 맘에 늘 살아계시네”

지난 성금요일(14일) 금요집회 시 전 성도는 하나가 되어 십자가를 통해 열릴 새 예루살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한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그 영광 예루살렘성 영원한 곳이라! 호산나 호산나!” 사실 그 날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승리(골 2:15)를 확신하기에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이 아닌 거룩한 성을 소망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케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예수님은 모든 사랑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땅 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행 1:22).

*오늘(16일), 부활절 특별찬양(찬양 예배 시)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그리스도의 영광

6. 주기로 결심하심 (눅 22:22)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23회에 걸쳐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믿게 되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전하여 주셨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길을 십자가로 향하셨다(요 1:29).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이었다. 이제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영광의 소망이다”(골 1:26, 27)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의 결정이었다(눅 9:30, 31). 이 길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오직 하나의 길이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배반당하시고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다. 이것을 피해가는 다른 모든 길은 예수님은 거절하셨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간구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고 사랑한다는 가장 가까운 제자의 충고였다(마 16:21-23).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단호하게 책망하신다. “사단이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언급하시는 예수님과 안타까운 베드로 즉, “위대할 자는 고난과 죽음을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제자의 모습이다.

인간의 육체는 쉬운 길을 요구한다. 기도자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육체는 힘을 잃는다. 육체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 이끌림을 받게 된다. 인생은 죄의 법 아래 매여 있으므로 사망의 물 안에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다(롬 7:15, 23, 8:8). 바울은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롬 7:24, 25). 그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죽으시기로 결심하신 후 셋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하셨다(마 26:38). 주님 자신의 뜻을 피력하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간구를 호소하신다(마 26:39). 절대적인 자기 부인의 기도이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마 26:41).

사탄은 쉬운 길을 그리스도께 제공한다(마 4:8, 9). 사탄은 예수께 천하 만국을 보여 주었다. 세상을 쉽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였다(계 19:13, 16).

창조들도 그리스도께 도전한다(마 27:39, 40).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며 소리를 지른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께서 사탄에게 첫 시험을 당할 때도 사탄은 꼭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마 4:3, 6).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로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실천하셨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역시 도전한다(마 27:41, 42). 이들은 세상의 표적을 원한다. 이들은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다. 주님은 일찍이 이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눅 16:30, 31).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군병들이 이들에게 알렸을 때에도 저들은 회개치 아니하였다. 돈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갔다”고 전하라고 하였다(마 28:11-13).

강도들 역시 모욕하였다(마 27:44 ; 눅 23:39). 하나님도 언급한다. 아버지도 언급한다. 믿음도, 사랑도, 모든 성경의 진리를 언급하며 십자가를 피하려고 예수님을 모욕한다(마 27:43). 이들은 모든 진리를 모욕하였다.

군인들도 회동한다. 예를 표한다며 회동한다. 군대를 모은다. 자색 옷을 입힌다. 주님께 가서 면류관을 씌우고 경배한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끌어 끌어난다(눅 23:36, 37).

세 여인들은 조용하게 바라본다(요 19:25).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좇아온 자들이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마 27:55, 56).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 천상에서 결정된 것이다. 감을 빼는 베드로를 꾸짖으신다(마 26:53).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마 26:54) 그분은 결심하셨다(눅 22:22 ; 히 10:7 ; 시 40:7-8 ; 사 50:6-7). 그는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사 53:6, 10). 영생을 위하여 죽으셨다(히 9:12).

PATH OF LIFE

***“You will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in Your right hand there are pleasures forever” (Psalm 16:11)***

Human life consists of many different conditions. Sometimes things go smooth and easy, and other times things run rough and difficult. Sometimes we face suffering and other times we experience pleasure. Sometimes things look up and other times they seem down. Sometimes things are clear and other times they are obscure. Some days are bright and shiny and others are dark and cloudy.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your life is your final arrival. Some people think they have arrived when material wealth, fame, or big business comes their way, but that is not final. Where you finish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That is final! Human life is a pilgrimage, and if you are far off from the gospel, you have only one pathway, toward the grave.

Today is the second Sunday after Easter, right after Jesus resurrected He revealed the pathway of life. 1 Peter 1:3 says,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When you accept Jesus Christ, you become a born-again Christian, which means your pathway is toward heaven. Jesus told Nicodemus,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Jn. 3:5). Jesus made new birth possibl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17). Jesus lived to die,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Heb. 12:2). He died to live again, “Since then the children share in flesh and blood, He Himself likewise also partook of the same, so that through death He might render powerless him who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and might free those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subject to slavery all their lives”(Heb. 2:14&15). His resurrection created the path of life, so that you could experience new birth and live eternally with God. His resurrection has the power to make you a partaker of life, “After a little while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Jn. 14:19).

Jesus’ resurrection created new life, which created a new humanity, a new family of believers. When He came to His disciples in His resurrected body, He told them,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lso send you.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the sins of any, their sins have been forgiven them; if you retain the sins of any, they have been retained’”(Jn. 20:21-23). Each member of His new family receives His fullness of joy. Do you have this joy? You know Jesus lives, and you know you are going to be with Him sooner or later. 1 Jn. 5:11&12 says, “And the testimony is this, that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Are you excited? If not, then you do not have the Son of God in you, which means you do not have new life. What is your testimony?

Today’s Bible verse also tells us that Jesus has eternal pleasures in His right hand. When trials and tribulations surround you, are you sad and depressed or do you rejoice in the Lord? Colossians 3:1-4 says,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 Where is your mind set? Do you sometimes experience joy and sometimes do not? If that is the case, then you are not seeking the things above. Your mind is set on earthly things, like money, power, and respect. In 1 Corinthians 1:17&18, Paul says, “For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 not in cleverness of speech, so that the cross of Christ would not be made void.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He goes on to say in verses 19&20, “For it is written,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and the cleverness of the clever I will set aside.’ Where is the wise man? Where is the scribe? Where is the debater of this age? Has not God made foolish the wisdom of the world?”

My dear friend, you need faith, hope, and love in Jesus Christ. Do you realize how awesome He is? Even Christians ignore His wonderfulness. They care more about their own glory, than His glory. They care more about what others think, than Him. Jesus resurrected and revealed the path of life. Did you find it? If you did, then you have joy. If you really found it, then you have eternal pleasures. Revelation 22:16&17 says, “I, Jesus, have sent My angel to testify to you these things for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descendant of David; the bright morning star.”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What a wonderful inheritance, “to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1 Pet. 1:4). What a joyous life! Do you have this faith, hope, and love? You do not have to meet Jesus Christ physically to receive eternal joy and pleasure. You will get them from heaven if you believe it by your faith. I hope you follow Jesus Christ, who resurrected and ascended, and promised to come back again. He is preparing your eternal home in heaven. Are you waiting for Him in excitement? What a joy, what a pleasure, to serve and love the Lord Jesus Christ. 

다음 주일 설교

생명의 길



김성관 목사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1)

인생에는 수많은 짐이 숨어 있습니다. 때때로 삶은 순탄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힘나고 힘겨운 남떨리기로 떨어지고 맙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픔을 당하며 때때로 기쁨을 누립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상수 기류를 타다가 때때로 모든 것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다가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느 날은 밝고 눈부신 햇살이 비추지만 어둡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와 명성을 얻거나 큰 사업이 잘 되어갈 때 목격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인생을 어디에서 끝내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 무덤으로 향하는 외딴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 생명의 길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3은 말합니다. “천송하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를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인생길이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예수님은 새로운 탄생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컨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주님은 다시 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니”(히 2:14,15).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티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 14:19).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류, 곧 믿는 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21-23). 주님의 새로운 가정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분의 충만한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곧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까. 요한 일서 5:11,12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흥분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한 영원한 기쁨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우편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시편과 역경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까 아니면 주 안에서 기뻐할까? 골로새서 3:1-4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저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쁘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위엣 것을 찾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돈, 권력, 존경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빼앗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7,18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번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냐”(고전 1:19,20)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진실로 경외해야 할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의 경이로움에 대해 무지해 버립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16,17은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유산입니까? 곧 “찌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4). 이 얼마나 즐거운 삶입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로부터 이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요 8:51-58)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진리가 되어야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한낱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가 감히 하나님의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척 분노하였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분이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요 8:58). 이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요 8:59).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었다(요 3:14).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요 8:55).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주위 환경 등 세상 것들에 매여 살며 주님 앞에 거짓말장이가 되고 있다. 비록 교회의 일을 맡아 하며 믿음을 간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다니엘을 보라. 그는 약속된 지위와 부귀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기도하며 죽음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또 세마네로 가셨다.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다. 이처럼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신 예수님을 따르자.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지 말라. 순천항에 유대인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기도만이 있었고 주님은 이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다. 생명을 받은 이들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스도로 풍성한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라고 기도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로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자의 기도이다.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신자의 모습이다. “나의 믿을 약할 때 주 볼드네 마귀 나를 꺾일 때 주 날 볼드네 사방하는 나의 주 나를 볼드네”(찬 423장). 내가 나를 붙들면 반드시 넘어진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가? 세상의 복, 율법, 우상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죄인 괴수이다. 항상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행 7:51-53).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하는 자들이다. 당시의 백성들도 그러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들었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심령은 교만으로 가득 찼다. 이처럼 교만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요 5:36).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전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현대를 사는 많은 종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존경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거부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라”(히 4:14).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총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종말은 비참하게 된다. 이성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설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구원함께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히 10:37-39). “믿음이 이기니 주 예수를 믿음은 온 세상 이기네”(찬 397장). 이제 곧 있으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요 3:16).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요 3:35,36). 오직 복음을 비롯한 성령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 위해서 존재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안타한 삶을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은 우리의 영원과 관계되어 있다.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 자는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요 6:53-5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자에게 마지막은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끝은 없다.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시 116:9,15). 말씀을 믿는 참성도에게서 영원한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고,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찬 289장). 그러므로 현재 우리를 힘있게 하는 수고와 절노 안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단지 예수님께 모든 수고와 짐을 맡기자(마 11:28).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자(고전 2:12).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흔들림없는 믿음으로 살자(롬 1:16,17).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한 걸음씩을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황하게 지날 때 고만하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찬 429장).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중언이 되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살도록 늘 알게 함소서”(찬 239장). 아멘.

리도를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배 시에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기엔 찬송의 뿌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주일 찬양 사역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찬양대원이 먼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께 서서 찬양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에 경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고쳐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에 찬양을 연습한 후에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 후에도 오전 2시까지 연습을 하며,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꽤 많은 시간을 연습 시간으로 드려야 하지만 대원들은 아무런 불만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일과 토요일 연습 시간을 통해 큰 은혜를 받기에 이런 시간이 기다려지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찬양대와 마찬가지로 지교회 대부분의 찬양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원들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지금은 곡과 가사를 먼저 외워 깊이 묵상하여 마음을 통해 충분히 은혜를 받은 후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을 드릴 것이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원들의 마음은 지휘자의 손끝에 집중되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양대에서도 즐겨 흥행할 것 같아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찬양대가 부흥되어 주일 찬양에 200명 이상이 단에 섭니다. 헌신된 인원이 많을수록 함께 찬양하는 기쁨이 매우 큼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역대상 2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찬양을 배워 익숙한 자 288명이 서는 날을 하라해 주시기를 더욱 겸손히 기도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찬양의 은총 할렐루야 찬양대



윤선진(교무, 할렐루야 찬양대장)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시라”(계 5:13). 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들로 하여금 평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친히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총의 기쁨을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는 모든 찬양대는 찬양과 연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연초에 사명 선언을 합니다. ① 영생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한다. ② 음악성을 향상하고자 모든 연습에 성실히 참여한다. ③ 인성을 위해 대원 간에 진실한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된다. 이 사명은 인간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사역이기에 더욱 마음을 다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는 주일 3부 예배(오전 11시)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는 232분의 찬양대원과 33명의 오케스트라대원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찬양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이 많은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큰 힘을 다 해서 어린 양이신 그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차를 타고 나아갔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았다. 특히 학교에서 6명의 여고생들을 만났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들에게 차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들과 일일이 주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였다. 그들을 보면서 '저 속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주님만이 아실 것이다'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다. 또한 계속되는 사역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초등학교생들의 그 진지한 눈빛도 잊혀지지 않는다. 복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란 한 문장씩 읽으며 어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은 오히려 나의 불안정한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처럼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결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선교를 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었다. 선교를 가기 2~3일 전부터 아기가 아프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선교지로 떠나는 날 아침에는 아기가 목욕탕에서 심하게 넘어졌다. 절로 "주님!"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처럼 선교를 막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나는 오직 기도하였고, 결국 주님의 은혜로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다.

신은희(집사, 11교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

- ◇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였습니다. 육신은 힘들었지만 진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힘이 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나의 입을 열어 주님이 담대히 말하게 하시는 이는 분명 성령님이셨습니다. (김기복 집사)
- ◇ 저의 무능과 부족을 깨달았고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여러척음을 진실로 회개하였습니다. (오명자 집사)
- ◇ 완벽하게 준비가 잘 되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땅에서 신발을 벗을 줄 아는 자를 사랑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재령 집사)
- ◇ 찬송을 따라하며 복음을 영접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장난삼아 저희들을 따라다녔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모든 아이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문숙향 집사)
- ◇ 복음을 전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맑은 영혼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곳에 보내 주신 주님께 순간 감사하였습니다. (김향진 안수 집사)
- ◇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웠지만 오직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준비된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조규철 집사)
- ◇ 파리가 득실거리며 먹거리도 오직 밀밖에 없는 열악한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참생명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김선영 집사)
- ◇ 주님께서는 저희의 고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김진호 성도)
- ◇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팀원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어린아기보다도 어릴만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들었고,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김정혜 권사)
- ◇ 점심 식사 후 계획이 없던 학교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우리의 전도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큰 글씨만 읽도록 애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작은 글씨까지 직접 읽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하고 다시 한 번 주님의 인도에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최상기 안수 집사, 담장)

교회 직원 3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은총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 주셨다. 오직 말씀에만 참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역 현장에서 뚜렷이 보여주셨다.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은 먼저 나를 발가벗게 만드셨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친 산 같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다. 현지인들은 우리의 말 자체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전도지도 없었다. 인건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선교였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더욱 기도만 하였다.

이처럼 낙심된 마음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였고, 정말 신기하게 복음을 잘 알아듣고 영접하기까지 하게 만드셨다. 어린이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해 주고 싶어서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 아이들이 눈 한 번 찌고 않고 앉아 듣지도 못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했다. 또한 깊은 산속에서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이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함께 하였고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뿐이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이혜선(대학부 3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4월 4일(화) - 4월 13일(목)	10교구 추가	이용수
4월 5일(수) - 4월 13일(목)	직 원(4)	이실호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7일(월) - 4월 26일(수)	12교구 4지역	강창식
4월 18일(월) - 4월 26일(수)	3교구 5지역	정창수
4월 18일(월) - 4월 26일(수)	직 원(5)	최준호
4월 18일(월) - 4월 27일(목)	5교구 5지역	정태동
4월 18일(월) - 4월 27일(목)	15교구 2지역	이강근
4월 18일(월) - 4월 27일(목)	15교구 3지역	최진성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며”

♡ 어디 가든 항상 같이 다녀 주시고 우리가 잘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김유림(유년부)

♡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나 해리(초등부)

♡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은혜로 지금의 이 영원한 생명이 기쁨으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요. 김은진(초년부)

♡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를 읽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건너 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이경아(중등부)

♡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 기쁘고 감사 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재윤(중등부)

♡ 예전에 실감을 못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내 삶에 큰 은혜로 다가와 예수님과 많이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변해연(고등부)

♡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장태은(대학부)

♡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신로정(청년부)

♡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던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여져서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궁양희(청년2부)

♡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사실을 잊으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엄현인(집사, 8교구)

♡ 내게 세상적인 좋은 것을 주셔서가 아닌 근본적인 나의 죄를 사해 주심에 감격하는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제게 큰 행복입니다. 홍명철(교사, 무지부)

♡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경호(안수집사, 12교구)

거룩한성" 찬양을 드리며

이제 구원하소서

언제인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좀더 주일이었던 것 같다.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자 예배 중에 찬양대에서 들려오는 '호산나 호산나' 내 귀에 들리던 찬양으로 인해 내 마음에 강한 성령의 필름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 때의 찬양을 금요찬양 시간에 내 입술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던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시 118:25).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라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시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한 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귀 타고 오사 생명을 드러 우리를 구원하라 오신 천국의 왕이시여! 찬양을 드립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저 빛난 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의 드릴 것은 찬양뿐이니오, 우리의 고백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강윤옥(집사, 5교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유지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사복음서를 묵상하며

영적 장애인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면 기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 채찍질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나 너 위해서 피 흘렸는데 나 너 위해 뭘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어! 저로 하여금 사람의 잔을 자기에게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됨을 알았습니다. 나를 만족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양떼를 먹이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시고, 사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명은(집사, 15교구)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후일 주님을 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작은 열매라도 찾으신다면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저의 마음은 마냥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적인 겉데기 신자는 아닌지? 이번 사순절 동안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8)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영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지만(골 3:2)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서도 여전히 저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온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좇으라(마 16:24)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건강이 온전치 못함을 핑계로 저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질 것은 것도 회피했던 심히도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 영의 눈이 열리길 기도드립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 실족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기도 드립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깊은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입이 열리기를 기도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고 더욱 간절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정택(집사, 14교구)

교회 생활 예배다부 (청년1부)

손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은총의 증인들



입술은 닫고 있지만 언제
나 마음은 열려 있는 사람
들이 겉으로는 침묵하는 모습
이지만 속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 사이에
있다. 예배다부!

예배다부의 청년 1부에는 어떤 분들이 주축하시니까?

20대의 농아인과 건강인들이 예배다부 집회 후 함께 성경공부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진은수 집사, 교사)

반을 어떻게 운영하시니까?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여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섬깁니다. (김유석 집사, 교사)

예배다부에서의 청년들의 역할은?

예배다부에서의 청년부는 예배다부를 대표하여 부서하고 맡습니다. 찬양대에 청년부 학원이 가장 많이 있고 여전도회와 반가이 하며 매주 청소년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영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이사가 60대에 있는 말씀처럼 '빛을 발하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민경주)

예배다부에서 나누는 은혜는?

선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디. 지난 선교 때, 수화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디. (정지호)

이제 예수님을 물리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 때도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송용규)

저는 지난 1월에 이곳에 왔습니디. 처음에는 영적 생활이 달라 힘들었고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농아인들을 보았습니디. 주님께서 예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미희)

선교 갔을 때, 나라마다 수화가 다르긴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수화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

신기하고도 특별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영성진)

믿음의 증진을 어떻게 하세요?

모든 예배와 금요집회에 참석합니다. 또한 매주 마지막 토요일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을 쌓아 갑니다. (민경주)

말씀 묵상을 통해 진리를 깨닫지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용규)

어머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디. 이제는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동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디. 그런데 교회에 오기 전에 마음이 어둡고 답답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디. (백민진)

신앙의 과오는?

단기 선교 가서 100%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디. 선교 전에는 농아인 교회가 두 곳밖에 없고 목사도 안 계시어서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는 상태였습니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수화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디. 또 청년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인생에서 내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게 됐습니디. (전영애)

어려서는 건청인 교회에 다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 했어요. 그래서 방황도 했습니디. 그러나 중학교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신앙 생활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상철)

앞으로 소망은?

땀 흘려가서, 복음을 잘 듣지 못 하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김민정)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예배다부가 농아인 중심이지만 건청인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민경주)

3월 26일에 개관한 수화 교실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수화에 관심 있는 분은 오셔서 함께 고쳐머리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영애)

밝게 웃고 있는 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기에 더욱 값집니다. 다음 주일(23일)은 장애인 주일이니, 이들이 복음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요. (민준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35장 갈보리산 위에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성이로 주가 고난을 당한 로마 황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릴일세'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디.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정작 죄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하셨습니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양이 영광 다 버리고 혈한 십자가 지셨도다' 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수치를와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영적 소경 같은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혈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맘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린 보혈일세'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영향을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혈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고 주가 죽고도 충성하라'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오든 사탄은 더욱 나를 미혹하고 범죄케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혈한 십자가 붙들게'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윤미영(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 새 가 족 을 환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64	최미란	4 청년2부	곽숙진(4)	1189	이성수	2 청년1부	조재욱(2)	1214	송준석	19 고동부	최민희(8)
1165	원찬선	19 외선부	남숙재(11)	1190	장은진	19 대학부	안연숙(4)	1215	조규홍	10 청년1부	전귀환(8)
1166	김미영	19 청년1부	김경태(2)	1191	밀라	19 외선부	영희재(4)	1216	전은숙	3 청년2부	박태준(3)
1167	강학자	10 청년3부	조영희(7)	1192	시도호	19 외선부	영희재(4)	1217	송은진	19 대학부	박현희(1)
1168	김성구	14 청년1부	박익수(4)	1193	나인환	19 외선부	필립보(18)	1218	한수영	19 고동부	김지현(15)
1169	원찬선	15 청년2부	김정현(10)	1194	이세현	3 청년2부	남영희(18)	1219	서세연	19 고동부	김지현(15)
1170	최희철	2 청년1부	김영희(4)	1195	이정현	3 청년2부	황 철(4)	1220	유미영	19 고동부	
1171	이정희	19 청년1부	이명순(8)	1196	김지선	19 대학부	최옥숙(4)	1221	황정애	15 청년1부	황정애(2)
1172	신미희	19 청년1부	전성일(2)	1197	남효준	19 고동부	박현희(4)	1222	사복수현	19 외선부	공석영(4)
1173	강혜영	19 청년1부	최지훈(3)	1198	김성철	7 청년1부	한계수(7)	1223	장영숙	14 청년2부	남영숙(18)
1174	민경희	19 대학부	김선애(4)	1199	유성우	19 중동2부	장기혁(3)	1224	김영희	5 예배다부	박종진(16)
1175	이혁광	19 청년1부	신소재(15)	1200	이규환	19 중동2부	정준태(2)	1225	박찬기	19 대학부	이정태(2)
1176	전운환	19 대학부	김희정(4)	1201	박현동	19 중동2부	김태영(15)	1226	소하리	19 외선부	정옥희(2)
1177	정미선	19 대학부	이순현(4)	1202	최민서	19 청년1부	강성호(16)	1227	주다영	19 외선부	
1178	조니	19 외선부	노수진(3)	1203	김다현	12 청년1부		1228	최미리희	19 외선부	이희철(12)
1179	장지훈	8 청년1부	김수일(8)	1204	김지희	7 외선부	최민희(17)	1229	피도리	19 외선부	안남숙(4)
1180	김은희	19 고동부	이우주(19)	1205	김다현	19 중동3부	김영희(8)	1230	황한	19 외선부	김정희(12)
1181	권현희	19 청년1부	김보민(9)	1206	김지현	11 청년1부	조영환(14)	1231	키오미리희	19 외선부	이정현(3)
1182	최유진	19 청년1부	이영희(10)	1207	이예슬	19 대학부	황정희(12)	1232	홍정	19 외선부	김영희(3)
1183	정미선	8 청년2부	오석우(4)	1208	김다현	19 대학부	이정현(12)	1233	김다현	19 청년1부	조미희(19)
1184	정미선	19 청년부	박복희(4)	1209	조은수	19 청년1부	성영미(2)	1234	주다영	19 대학부	전계희(7)
1185	김영자	9 소동부	안도희(11)	1210	박복희	4 청년2부	박복희(5)	1235	박현현	19 대학부	김지현(12)
1186	황송용	1 청년1부	석예미(1)	1211	이연희	19 청년1부	한정희(18)	1236	이희철	7 청년1부	
1187	김영희	16 청년2부	김복희(4)	1212	박복희	5 청년2부	정영희(2)				
1188	최정희	2 청년2부	김지현(5)	1213	황송용	19 대학부	최민희(2)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3,4지회 월례회
일시: 19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별 세

1. 양림환 씨(양미순 성도의 부친,
9교구 교문구역) / 10일 별세,
12일 장례
2. 홍출환 씨(홍기수 집사의 부친,
9교구 면목1구역) / 10일 별세,
12일 장례
3. 차성환 집사(차은영 집사의 남편,
9교구 덕소1구역) / 11일 별
세, 13일 장례

결 혼

1. 최경원 군(최남철 씨, 김매선 씨
의 아들)과 서민정 양(서상근
집사, 김수자 집사의 딸, 13교
구) / 22일(토) 13:00 그랜드힐
튼호텔 그랜드볼룸(홍제역 3번
출구)

◆ 2006년도 상반기 수회교실 개강

일 차: 3월 26일~6월 11일(12주)
시 간: 매 주 일 오후 3:10~4:20
장 소: 에버다부실(제2교육관 1층)

◆ 예번 오케스트라 편곡자 모집

자격요건: 작곡 전공자로서 오케스트라
편곡을 할 수 있는 자
문 의: 찬양위원회(본당 113호)

◆ 주일 예배 및 금요집회 주자안내

원활한 주자 관리를 위해서 자원 안내부의 지시에
작곡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직자정보: 안수집사: 제2교육관 지813·4층
○ 일반 성도: 차림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주자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주변 전도의 날)

일 시: 금주(19일), 수요일 1부예배 후
대 상: 전 교인 (교구별 여전도회 중심)
진 행: ① 수요1부 예배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교회주변 전도 실시

교회직원 모집

- 1.모집 부문 경비부·총헌기독원 주방(예)
- 2.자 격 세례 교인
- 3.모집 서류 자필 이력서·주인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552-8200 (내선 403)
- 4.서류 제출처

2006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4월 16일 (오늘)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종호 목사)	교육관 300호	세례란? (정성영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 세례란? (안치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4월 23일 (다음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일바람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일일바람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김단우	고광환/이용수	김익환/김종성	장 훈/유종석	임현덕/문훈부	이성진/류진희	안치원/한성림

예배담당 안내 (4/19-4/23)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4/19	수요 I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호산나 찬양대)	고광환	심금숙	다 내게로 오라 (마 11:28-30) 여국근 목사	
4/19	수요 II	생물과 같은 보혈은 (실로암 찬양대)	임현덕	황종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레 10:19-25) 정종신 목사	
4/21	금요회	헬로 이화영 / 소프라노 김지희 / 합창부	제2예배장담당	류병희	양재용 목사	
4/23	주일 I	〈예배 전 찬양〉		황진광	신광렬	생명의 길 (시 16:11) 정성영 목사
4/23	주일 II	주님의 마음을 뵈는 자 / 소프라노 김희숙(임기수영 관장님 출로이스)	고광환	유상태	생명의 길 (시 16:11) 이희식 목사	
4/23	주일 III	최 요강 찬미회 / 테너 이영덕, 바리톤 오상덕(합창부) / 합창단 (합창)	나광영	고재승	생명의 길 (시 16:11) 정진호 목사	
4/23	주일 IV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트럼펫 박성운(아연 오케스트라)	정종신	김민근	생명의 길 (시 16:11) 하종현 목사	
4/23	주일 V	갈릴리움 찬미회 / 테너 장재구, 바리톤 김재석(합창단) / 합창단 (합창)	이경춘	박철구	생명의 길 (시 16:11) 김영훈 목사	
4/23	주일찬양	사랑부 중창단 / 에버다부 / 가브리엘 찬양대	안치원	최무규	그리스도 안에 관계 서라 (골 2:6-7) 장현민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찬양	저녁 11:00	금요집회 후 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미, 중국어, 일본어 및 우리말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히브리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 통역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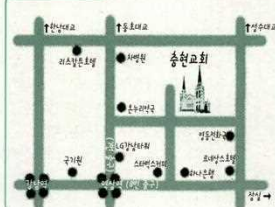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1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1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스 망 부	오후 12:15	갈 리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목자관 지하1층
에버다부	오전 9:00(화일) 오후 1:00(장일)	제2교육관 1층
타 기 부	(화) 오전 8:30~9:40 (토) 저녁 7:00~9:30	교육관 110호
새벽기도회	오후 12:15	메 디 나 홀
총헌위원회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장년정신건강교육	주간교육	총헌복지관
국제화국인성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4월 총헌 기도의 창

-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2 모든 위임회에 속한 성도들이 자기를 부린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은사를 전하게 하소서.
- 3 2006년도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4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 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5 모든 위임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헌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절로

김익환	김은호	노광현	이병하	이 훈
남선우	김종수	최무길	이창호	차진득
김광남	이정수	임두원	전종용	전홍기
이정우	김단우	한승규	김영환	김환기
한용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민	박덕양	이태식	정태환
박용규	권명옥	조종환	배순식	김영달
이성호	최희승	노광현	박철구	장정길
신상수	고재승	강철형	김영준	이단용
장철환	김승곤	함철주	윤석민	장선현
안석현	김민근	김광국	김종선	임창식
김은철	전계태	김진국	전계식	김광문
장승규	전준배	석영식	구재환	송두섭
최자용	신진길	유상태	박상산	김규석
신광철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여국근	안광진	나영정	정진호	김용득
고광환	한원강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철환	하종현	안치원	정종신
양재용	이성진	조무규	최성규	이재영
이정준	이정수	김준희	이정우	황진광
정성영	이정훈	김태식	김성관	

■ 여전도사

산동주	윤순덕	한영준	김익선	홍순애
이옥주	김진라	안대순	김진영	강덕원
최문순	김진희	김영준	김정자	김정희
이복순	류진희	한성일	임태주	장영미
신기영	이복순	강오숙		

■ 찬양감독

정진희	서준성	김원섭
전일동창자	김소연	전일연주자 장연희
선 고 시 송유환		